



www.at.or.kr

# 일본 농식품 수출품목 소매가격조사 7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7월 품목 및 원산지별 소매 가격 분석 - 일본



## 1. 김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 1) 원산지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2. 음료류 (과채 주스)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 1) 원산지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3. 면류 (라면)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 1) 원산지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4. 주류 (민속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 1) 원산지별 민속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5. 제과류 (스낵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 1) 원산지별 스낵류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6. 소스류 (장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 1) 원산지별 장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일본 연화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7월 28일자 기준으로 작성, 1엔 = 10.10원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1~7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일본



## 1. 김

2)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변동 추이



## 2. 음료류 (과채 주스)

2) 원산지 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 3. 면류 (라면)

2) 원산지 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 일본 연하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7월 28일자 기준으로 작성, 1엔 = 10.1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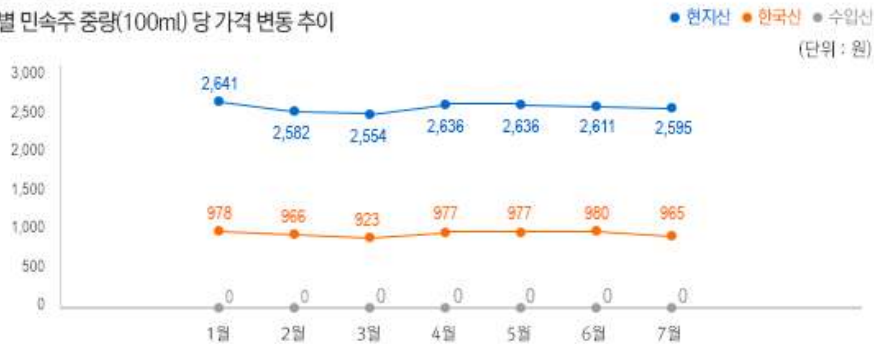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1~7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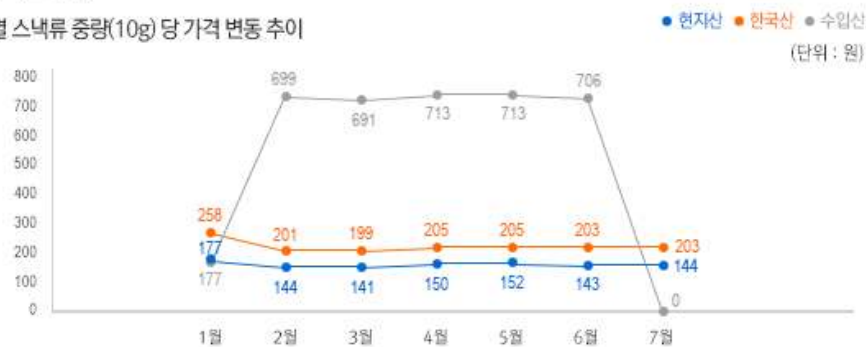
## 4. 주류 (민속주)

2) 원산지 별 민속주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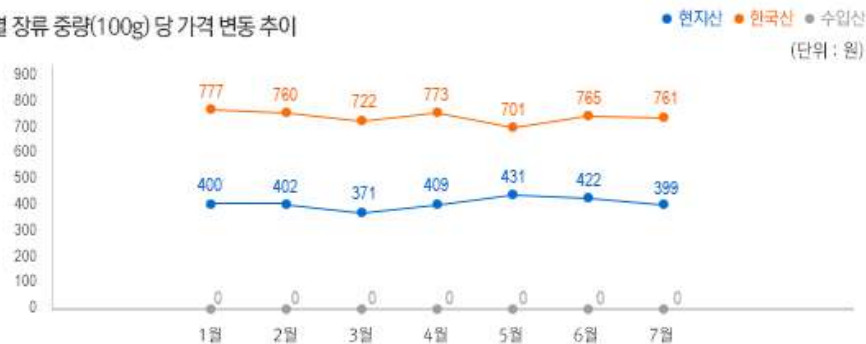
## 5. 제과류 (스낵류)

2) 원산지 별 스낵류 중량(10g) 당 가격 변동 추이



## 6. 소스류 (장류)

2) 원산지 별 장류 중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 일본 연화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7월 28일자 기준으로 작성, 1엔 = 10.10원

가공식품

**수요 감소 ▼** " 일본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중국 김치 "

온.오프라인으로 오직 한국 식품만 취급하고 있는 eKOREA, Inc.의 김대철 대표는 중국산 김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김치가 대량으로 일본에 유통되고 있지만 일본 소비자의 경우 식품의 위생이나 제조방법 등 안정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중국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김치 구매 시 인터넷이나 한인타운에서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나 한국인이 직접 담근 김치를 고르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치]

면류

**가격 상승 ▲** " 여름 시즌을 맞아 수요 증가 중인 냉면 "

일본에서 농심 제품을 비롯한 각종 한국 식료품을 취급 중인 OilJang의 담당자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냉면 판매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자연스럽게 차가운 음식을 찾는 고객이 증가했다며 일본의 경우 냉면, 소바, 모리오카 냉면 등 다양한 냉국수 제품이 존재하며, 고객들은 개인의 입맛에 맞춰 제품을 고른다고 설명했다. 그 중 한국 냉면의 경우 주로 농심사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여성 고객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그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7월~9월 사이에는 냉면의 인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냉면]

신선식품

**수요 감소 ▼** " 소비자들에게 서서히 잊혀져가는 다시마 "

한국 소스, 과자, 라면, 김치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eKOREA, Inc.의 김대철 대표는 일본 내 다시마 수요도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일본의 한 프로그램에서 북어국이 동안의 비결이라는 방송이 나간 직후 북어포와 다시마에 대한 수요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었지만 현재는 잊혀졌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대표는 일본은 먹거리 안정성에 민감한 국가 중 하나로, 방송에서 인기를 끄는 제품이라면 안정성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요도가 급격하게 변동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너무 독특하거나 브랜드가 없는 제품 역시 유사한 이유로 기피한다며 새로운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한다면 매스컴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다시마]

**음료류**

**수요 증가 ▲** “ 일본에서도 효능을 인정받은 한국 홍삼음료 ”

일본에서 양파진액, 홍삼진액 등 각종 건강엑기스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株式会社 世亜企画의 담당자는 일본 내 한국 홍삼제품의 인기가 오름세라고 밝혔다. 그는 현지 제품의 경우 흑마늘로 만든 제품이 유명하지만 한국 제품은 홍삼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귀띔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50~60대 이상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유망한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 천호식품의 엑기스를 취급해본 경험이 있으며, 보통 60대 이상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답변했다.



[천호식품사 홍삼진액]

**스낵류**

**수요 증가 ▲** “ 고령화의 심화로 각광받기 시작하는 유기농 과자 ”

유기농 농산물 및 식료품을 온라인 판매하는 有機農産物業의 담당자는 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건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중 60~70대 소비자들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라며 이에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일반 쿠키보다 몸에 좋은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고령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유기농 식품시장은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유기농 과자]